모든 관심거리의 완벽한 처리

(민3:1~51)

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8.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9.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1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관심거리의 완벽한 처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관심거리의 완벽한 처리'

속담 중에 "칼을 뽑고는 그대로 집에 꽂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변형이 되어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일단 관심이 생겼고 관심의 대상이 된 관심거리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심거리가 생겼지만 기대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거나, 관심거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나 엉킨 실타래를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삶의 문제인데 관심거리가 생겼을 때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관심'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로 정의합니다. ‘세계 내의 존재’로 정의 되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라는 말을 들추어내는데 인간의 존재 방식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대상을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관심으로 이 마음의 흐름이 삶이고 존재방식이라는 것인데 관심의 대상영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을 쓰고,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나 자신에 대해 내 마음이 나를 객관화해서 마음을 쓰고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다 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 영역의 대상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삶이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관심 중에서 아주 특별한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이라는 영역과 나라는 영역의 관심의 카테고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영역입니다. 환경이라는 영역도 나와 타인이라는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타인과 내가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역과 타인이라는 영역이 융합되는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자녀입니다. 세 가지 관심의 카테고리 중에 두 개의 카테고리가 융합되는 관심거리의 대상이 자녀로, 자녀는 핏줄이고 내 피가 흐르고 내 유전자가 있고 나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데 전적인 타자이고 남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인이면서 완전한 나의 분신이 바로 자녀라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자녀 속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가 만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유기적으로 환경이라는 관심영역의 카테고리가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맏아들), 즉 초 태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관심을 하느냐는 것인데, 성막 봉사자들로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을 성별해서 이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성막 봉사를 평생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야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 짜는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인은 열두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게 되는데 이 레위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레위인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영 짜기가 뜻하는 바는 사막의 기운과 성막에 내려오는 하늘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선민의 마음의 방향이 성막을 향하게 되면 하늘의 기운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 세상의 사막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사막의 죽음의 기운이 충만해져서 성막의 의미를 무효화 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남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살던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는 결국 후자 쪽이 현실이 되면서 가나안의 기운이 밀고 들어와서 성전을 무효화 시키고 바벨론이 남 왕국인 유다 예루살렘에 있

었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마는데 무서운 얘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레위인 이야기를 하지만 레위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열두지파에 속한 선민들을 위한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상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성막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운이 세상을 밀고나가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 세상의 현실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할 수 있고 아무리 급박해도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성막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을 므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가를 개략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의미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의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 모든 초 태생은 하나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르우벤 지파에 속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 남자 하나를 가지신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평생 성막을 위해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성막에 봉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장자를 하나님이 가지셔야 하는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은 우리 집에 장자가 있다면 장자 당사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다고는 하는데 장자는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한 남자를 가지시면서 이 레위인이 네 집에 있는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바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장자는 초 태생으로 내 것이다. / 예! 그렇습니까? / 그 장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그리고 레위인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이 레위인을 네 아들 대신에 내가 가져서 성막에서 평생 지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인데 여기에서 선민의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내 장자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레위인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내 마음이 흘러가던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것이고, 내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장자는 내 관심거리의 대표격이 되는 존재이고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나의 대한 관심이 융합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진 관심의 대상이 바로 자녀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에 대한 우리 마음의 흐

름은 절대적이고 강렬한 것이어서 우리 마음이 장자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치우시고 레위인을 대신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레위인을 내 장자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장자로 믿는 것이고 내 관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장자로 믿고 있는 레위인이 움직이는 곳은 성막이고 성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막에 있는 레위인이 내 장자라고 믿으며 마음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장자는 모든 관심거리의 대표이고 지금 갖는 첫 번째 관심의 상징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관심이 있지만 또 지금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관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상징이고 모든 관심거리가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관심거리의 대표가 장자인데 그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뀐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관심거리인 장자가 항상 성막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항상 성막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자를 레위인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고, 내 장자가 레위인이라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관심거리의 가장 완벽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 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삼으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어린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없게 됩니다. 그 어린양의 피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이데거의 말처럼 '세계 내의 존재'라고 해서 세계 내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세계 내에 있는 어떤 관심거리에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흘러가고 마음이 지불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아버지를 관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관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면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관심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에 선민의 영적 탁월함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써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타인과 나 자신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십니다. 내가 관심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에 대해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관심하고 마음을 흘려보내면 그 자식으로 흘러가는 관심의 통로는 하나인데, 내 마음과 내 관심이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막혀버립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셨지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장자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받아서 끊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에게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관심거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대해 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거리를 끊어버리는 일이고 사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장자는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의 대표이고 지금 갖고 있는 첫 번째 관심거리의 상징이므로 이 세계 내에서 어떤 것에든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갖고 계신 관심이 끊어지게 됩니다.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예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사람의 관심이 가닿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면서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신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장자를 죽이고 있는 상태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육체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고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이유는 관심거리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관심거리의 대표이고 관심거리의 상징이므로 모든 관심거리가 생길 때에 그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집에 있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가지셔서 성막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모든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어서 마음들이 성막에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괴팅겐 130,000명의 대학도시를 저희 어머니가 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 있으므로 저희 어머니 한 분만은 괴팅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심거리가 레위인으로 바뀌었는데 레위인이 성막에 가있으므로 내 마음이 성막에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에 마음이 머무르며 250만 이스라엘 전체의 심장이 성막에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성막에 있는 동안에 진짜 내 장자이자 내 관심거리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크기와 영역만큼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에게 가지는 큰 관심만큼을 레위인으로 바꾸면 그 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고, 다 큰 자식에게 갖는 작은 관심만큼 레위인으로 바꾼다면 그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사업, 과제, 승진, 결혼, 취미 등 관심거리가 많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 마음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기 위해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거리로 바뀌어야 될 레위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흘러가는데 내가 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죽습니다.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세상적으로 잘돼도 못돼도 우리 가정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 사업을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관심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꿔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던 관심거리인 자식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골3: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관심하라'는 것이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바뀐 관심거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현실을 잘 외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첫 번째 현실로 맞이할 수 있고 하늘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자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관심거리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납골당은 죽은 사람을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서 모아놓은 곳입니다. 성막은 살아있는 선민들의 심장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뀐 사건이 선민들의 심장을 담은 항아리입니다. 장자라는 세상의 관심거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보내면, 예수님이 우리 심장을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 땅에 사는 선민들의 심장이 가득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선민의 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고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관심의 실체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돈 걱정을 하다가도 이 관심을 예수님께로 바꿔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자를 레위인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뜻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자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유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관심거리의 대표이고,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관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모든 관심거리의 상징이 장자요, 대표가 장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레위인으로 바꾼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돈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믿지 않고,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돈 잘 벌게 해달라는 식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은 하이데거의 말대로 마음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삶입니다. 관심이 곧 삶인 것입니

다. 관심은 관심거리가 있어야 관심이 가능한데 삶의 관심거리가 되는 모든 대상을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돈 걱정을 하다가도 내가 선민이라고 깨닫고 돈 자리에 예수님을 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계속 마음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내 마음도 거기에 머물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교제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아버지로 배부르게 해주시면서 하늘 독상을 받는 삶이 시작되고, 내가 관심을 끊어버리게 된 이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거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관심거리의 완벽처리인 것입니다.
모든 관심거리를 레위인이신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하신 이유는, 장자는 관심거리의 대표이고 현재 관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주님 계신 하늘에 납골당에 유골이 모여 있듯이 선민의 심장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오직 하늘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관심거리를 대체함으로서, 우리 마음은 24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하늘에 머물러 안치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흐름이 끊어진 모든 대상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